

리투아니아 이민 문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

Vlada Vitunskiene 부교수
Aleksandras Stulginskis University

주요 내용

- 리투아니아는 1990년 독립 이후 국내로의 유입 인구 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함.
- 리투아니아 국민은 저임금과 높은 실업률 등 리투아니아 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이민을 선택하고 있음.
- 리투아니아를 벗어나는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리투아니아 내 노동시장에도 노동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등의 영향을 미침.



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
<http://www.emerics.org/> <http://www.kiep.go.kr/>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 리투아니아 내 이민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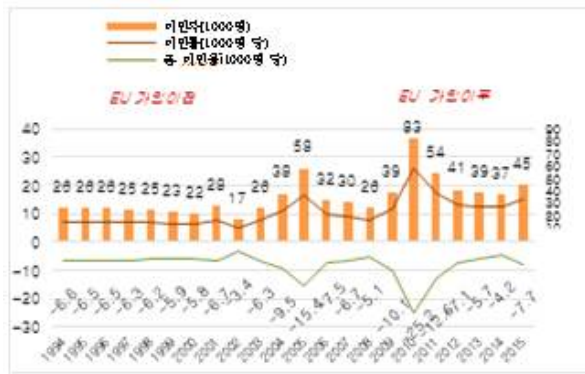
☒ 리투아니아는 1990년 독립 이후 해외로 떠나는 이민자들의 나라가 되었음. 이는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기 때문

- 통계상 리투아니아의 순 이민은 1990~2015년간 64만9천 명을 기록함. 이는 199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구의 1/6에 해당하는 수치임.
- 2016년 초 리투아니아 인구는 약 288만8,600명을 기록했으며, 인구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민으로 나타남. 이민 유입률은 매우 낮아 상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에 지나지 않음.
- 인구통계학자(Sipaviciene&Stankuniene, 2013)들은 리투아니아 인구는 소련 시기 이전부터 이 후까지 항상 높은 이민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.
- 리투아니아는 EU에 가입하고 노동 시장이 개방되면서 인구구조와 규모의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해외 이민도 급증
 - 2004~2005년 첫 번째로 이민율이 급증하는 시기에 리투아니아 국민의 이민율은 연평균 50%가 증가하였고, 이는 순 이민율이 연평균 56%까지 증가하도록 만들.
 - 결국 이 시기에 연평균 이민율이 75.8%가 되면서 리투아니아 인구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집계됨
 - 2008~2009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리투아니아에는 두 번째로 이민자 수가 급증
 - 1년 후인 2010년, 리투아니아의 해외 이민비율은 정점에 달함. 그 해 리투아니아인 83,157명은 해외전출을 신고하였음.¹⁾ 같은 해에 이민율과 순 이민율은 각각 118%와 149%로 집계되었으며, 리투아니아 인구감소에 87.2%의 영향을 끼침.
 - 최종적으로, 2015년 이민자 유출률은 21.6%로 증가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6.5%가 더 증가함.

1) 2010년에 두드러지는 이민율의 증가는 일정 부분 리투아니아 내 모든 거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조치에서 기인했다고 판단됨. 이 조치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기에 이민을 가도록 조장했을 것으로 추정됨(European Migration Network, 2016).

그림 1. 자발적 신고 이민자 및 순이민율

(단위: 1000명, 1000명당)



자료 : 리투아니아 자체조사(조사일자: 2016. 07. 20)

주 : 미자발적 신고자들은 집계되지 않았음.

그림 2. 이민자 거주이전국가

(단위: 연평균 비중, %)



자료 : 리투아니아 통계국(조사일자: 2016. 07. 20)

- 2004년 이후 리투아니아 국민은 주로 유럽연합 내 국가로 이민을 가기 시작
- 특히 영국, 아일랜드, 스페인과 같은 회원국들은 A8로 불리는 신생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노동시장을 가장 빨리 개방하였음.
 - 영국과 아일랜드로의 외국인 이민 유입은 첫째 급격하게 증가하였고, 2004년도 영국의 이민자 유입률은 +279%, 아일랜드는 +277%를 기록
 - 이는 전체 기간(2004~2015) 동안 각 국가의 해외 이민유입률의 8.2배, 4.8배 수준
 - 라트비아 국민 중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이민을 가는 이민자의 비중이 최근 상당히 높아졌으며,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영국으로 떠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.
- 리투아니아 해외 이민자는 주로 젊은 노동인력이 대부분인 상황이고, 점차 그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음.
 - 지난 6년 간(2010~2015) 집계된 전체 이민자 중 18~39세의 청년층이 66.1%이었음.
 - 평균적으로 18~39세 청년 1,000명 중 37.9명이 이민을 선택했으며, 이는 전체의 2.5배에 달하는 수치임.

2 리투아니아 국민이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

☐ 저임금과 높은 실업률 등 리투아니아 내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리투아니아 국민이 이민을 선택하게 하는 주된 이유임.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리투아니아 내 이민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

- 리투아니아의 사업가, 정치가, 전문가집단은 리투아니아의 저렴한 노동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투아니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인지해왔음.

-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해외로 유출되는 인구가 증가했는데, 이는 ‘저임금’과 ‘높은 실업률’에 이유가 있음.
 - 2013~2015년에 리투아니아의 노동자들은 시간당 평균 임금은 4.70유로였음.
 - 이에 비해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8.63유로였으며,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, 리투아니아의 평균 임금 순위는 유럽연합 국가 중 26위를 차지
 - 리투아니아 국민이 주로 이민을 택하는 영국(19.17유로/시간)이나 아일랜드(25.77유로/시간)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, 리투아니아 노동자들은 각각 시간당 75%와 82% 수준의 저 임금을 받음.
 - 반면 동 기간 동안 리투아니아의 노동자들은 소득 100유로당 39유로를 법정 사회 안전보장 연금으로 추가 지급받았음.
 - 리투아니아의 비임금 급여 순위는 유럽연합국가 중 2위를 차지
 - 영국과 아일랜드의 비임금 급여는 각각 20유로와 16유로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.
- 제1차 이민 대란 시기(2004~2005년)와 제2차 이민 대란(2009~2010년) 이전 라트비아의 실업률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
 - 리투아니아가 유럽연합에 편입되기 이전인 2003년에는 총 노동인구의 12.4%에 해당하는 20만 4,000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파악
 - 그러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업률은 평균적으로 2%씩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
 - 세계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7년에는 리투아니아의 GDP가 14.8% 감소하는 심각한 수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음.
 - 당시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상승해, 2010년 리투아니아의 실업자 수는 22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음.
 - 그해의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은 17.8%에 달했으며, 이는 2007년 4.3%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
 - 당시 리투아니아의 실업률 증가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게 기록
 - 2010년도 리투아니아의 실업률은 스페인(19.9%), 라트비아(19.5%)를 뒤이어 3번째로 높게 기록됨.

그림 2. 실업자 수와 실업률

(단위: 1000명 당, %)



자료 : EUROSTAT에 근거한 리투아니아 자체조사 (조사일자: 2016. 07. 20)

주 : 산출된 값은 2013~2014 평균값.

-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오가기 때문에 단지 저임금과 높은 실업률 두 가지 요인만으로 리투아니아의 이민현상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음.
- 더불어 직업적인 야망, 자기실현 욕구, 가족 문제, 사회 정의, 부패한 사회로부터의 이탈 등 비경제적 요인²⁾ 역시 이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됨.

3 전망과 시사점

▶ 리투아니아를 벗어나는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리투아니아 내 노동시장에도 노동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등의 영향을 미침.

- 지난 10년간,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순 이민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됨.
- 리투아니아 국민의 이민이 가속화되면서 숙련된 노동력의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, 2016년 1분기 계절직 부문에서 14,791명의 노동자가 부족했음.
 - 이는 6년 전인 2010년 1분기에 비해 2.6배 증가한 수치임.

▶ 더불어 리투아니아로의 유입 예정인구가 증가하고, 해외로 이동한 이민자가 다시 귀국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움.

- 유로스타트는 리투아니아의 순 이민율의 감소가 향후 15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함.
 - 2016년 상반기에 리투아니아 국민의 이민은 6.5% 증가함.
- 이민자들의 귀국을 도모해 통해 인구 규모를 안정화시키는 과제는 리투아니아 정부가 당면한 최대 난제임.
 - 올해 7월, 리투아니아 정부는 이민을 유보하고 유출된 인구를 복귀시키는 계획을 승인한 바 있음.
 - 그러나 해당 계획은 전년도 통계 결과를 토대로 계획되었으나, 현재까지 이민 유보와 유출 인구의 복귀 두 방향 모두에서 어떠한 진척도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.
 - 더불어 리투아니아 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이민의 주된 원인인 경제적 이유(낮은 임금과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상태)를 겨냥한 조치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.

EMERiCs

2) 예를 들어, 리투아니아로 돌아온 이민자를 조사한 결과(Žvalionytė, 2014), 리투아니아를 12개월 이상 떠났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음. 리투아니아의 임금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았기에 돈을 벌기 위해 떠남(응답자 804명 중 52.2%),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음(24.3%). 교육적인 목적(7.2%), 가족모임(남편/아내/부모/자녀)(4.6%), 모험심(3.9%), 파산(3.2%), 더 좋은 일자리 수준을 찾기 위함(2.2%), 리투아니아 내 기회 부족(0.7%), 사업(0.6%), 개인 사정으로 인한 도피(0.4%), 리투아니아 내 대학진학 실패(0.2%), 미국 영주권 획득(0.1%), 농구부 입단(0.1%), 응답 거부(0.1%)

출처

Sipavičienė, A., & Stankūnienė, V. (2013).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emigration on Lithuania. *Coping with Emigration in Baltic and East European Countries*, 45-64.

Žvalionytė D. 2014. Grįžusių migrantų integracija kilmės šalies darbo rinkoje: Lietuvos atvejo analizė. *Daktaro disertacija: socialiniai mokslai, politikos mokslai*. Vilniaus universitetas.